

금호타이어 임단협 결렬…빠른 합의로 광주공장 재가동 해야

노조 93% 찬성 쟁의행위 가결…노사 공장 재가동 놓고 시각차
합평 신공장·관세 압박 등 과제 산적…생산 차질뎌 공급망 악영향
지역 경제에 “조속한 노사 합의 삼중고 위기 극복할 돌파구 찾아야”

지난 5월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이번 중순 재가동 일정이 노조의 쟁의 행위(파업) 투표 가결로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공장 정상화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로, 지역경제계에선 신속한 노사 합의를 통해 공장 재가동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12~13일 쟁의행위 찬반 투

표를 하고 전체 조합원 3493명 중 3261명이 투표해 93.65%(3054명)의 찬성표로 파업을 가결했다. 광주공장은 지난 5월 발생한 화재로 생산이 전면 중단된 이후 설비 복구와 안전 점검을 거쳐 10월 추석 연휴 이후 단계적 재가동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재가동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복구 외에도 여러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5월 화재 피해로 자금난 등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합평 공장 신축과 함께 미국·유럽 등의 ‘관세 전쟁’에서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노조 합의 지연 등으로 생산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물량은 물론 해외 수주와 공급망 확대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노사 모두 공장 재가동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에 서 간극이 크다는 게 문제다. 노조는 “미국 관세 등 사측이 주장하는 대내외적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임금인상(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및 지난해 실적달성 성과급 지급) 등 실적 배분 여력이 충분한 경영 환경”이라는 입장인 반

면, 사측은 “회사의 회복을 위해 협력적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당초 이날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사측이 교섭을 요청함에 따라 파업 여부 결정을 연기하고 당분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상태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진정성 있게 사측과의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측이 주어진 시간 안에 끝까지 결단하지 못한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끝까지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이며 모든 구성원의 고용 약속을 지키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는 화재 복구와 공장 재가동, 합평 신

공장, 해외 관세라는 ‘삼중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사 간 대화와 내부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더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독려하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화재의 아픔을 딛고 10월 중 공장 재가동이라는 노사정의 약속이 채 이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갈등이 불거져 매우 안타깝다”며 “회사의 명운을 건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내부 갈등으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지금은 ‘노사가 한배를 타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으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이견은 잠시 접어두고 ‘공장 정상화와 미래 생존’이라는 대의를 위해 즉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상생의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56% 급감…감소폭 전국 1위

가맹점수 증가 소비처 분산 영향

올해 광주지역의 가맹점별 온누리상품권 평균 결제 금액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온누리상품권 평균 결제액은 지난해까지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1년 만에 수직하락했다. 이는 올 들어 지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소비처가 분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소재 가맹점

별 온누리상품권 평균 결제액은 올 7월 기준 92만 7270원으로 전년(212만 409원) 대비 56.3%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51만원으로 평균 결제액이 가장 높았고, 서울(263만원), 부산(212만원), 세종·대전(169만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가맹점별 평균 결제액은 광주·전남·대구·대전·울산·전북·경북·경남·제주 등 9개 사도에서 전년도 다 감소했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별 평균 결제액이 212만원으로 울산(228만원), 서울(220만원), 부산(204만원) 등과 함께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지만, 올해 50%가 넘는 가장 큰 하

락폭을 기록하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정부 및 지자체의 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 노력 등에도 과반 이상의 지역에서 평균 결제액이 감소한 것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확대되는 추세에도 여전히 주 사용자인 고령층의 데이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2022년 온누리상품권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부터 가맹점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광주시가 집계한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건수를 보면 2022년 337건, 2023년 377건, 2024년 2328건, 2025년 7월 기준 9059건으로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왕족의 포도 ‘로알바인’ 맛 보세요”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직원이 샤인머스켓에 이어 차세대 프리미엄 포도로 꼽히는 ‘로알바인’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8월부터 로알바인을 판매하고 있다. 로알바인은 씨없는 포도로 먹기 편하고,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왕족의 포도줄기’라는 뜻을 지녔으며, 국내 포도 농가 중 소수의 한정된 농가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클럽 재배’ 방식을 도입해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14일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바디워시 10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소비자원 제공>

“일부 바디워시 미세먼지 세정력 약해”

소비자원 10개 제품 시험·평가
가격차는 제품별 최대 13배

국내 유통 중인 바디워시 일부 제품의 미세먼지 세정력이 다소 떨어지고 가격 차이는 제품에 따라 최대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바디워시 10개 제품의 세정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지 세정력은 시험한 10개 제품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세먼지 세정력의 경우 6개는 ‘우수’, 4개는 ‘양호’로 평가됐다. 미끈거림이나 잔여감이 사라지는 행균 정도를 평가한 결과 10개 제품이 대체로 점수가 높았으며, ‘꽃을 든 남자 우유 바디샤워’가 4.3점(5점 만점)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용 후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지는 정도와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쿤달 하니 앤드 마카다미아 퓨어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가 각각 3.8점으로 모두 최고점을 받았다. 100ml당 가격은 제품별로 최대 13.3배 차이가

났다. 시험 대상 중 ‘목시당 베베나 샤워 젤’ 가격이 100ml당 9900원으로 가장 높았고, LG생활건강의 ‘온더바디 더내추럴 모이스처 바디워시 올리브향’이 74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각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과 내용량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뉴트로지나 데일리 바디 워시’는 0.01% 초과 함유 시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 재활용 용이성은 3개 제품이 ‘보통’이었고 나머지 7개는 ‘어려움’으로 평가됐다. 바디워시가 하수 등으로 환경에 배출됐을 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를 시험한 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중금속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화장품 안전기준에 규정된 보존제 11개 성분 함량도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용기 내구성도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주식 거래대금 한달새 45% 증가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5500억 감소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대금이 전월 대비 4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배당 기업 투자자 대상 분리과세 전환 등 국내 증시 부양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시총)은 대한조선 가격 조정 등으로 5500억원 감소했다. 14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5년 9월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대금은 3조 5065억원으로 전월(2조 4254억원) 대비 1조 810억원(44.6%) 증가했다. 광주는 1조 7184억원에서 2조 4460억원으로 42.3% 늘었고, 전남도 50% 증가한 1조 604억원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대금은 2조 1101억원으로 전월보다 4389억원(26.3%) 증가했고, 코스닥 거래대금은 7542억원에서 1억 3963억원으로 85.2% 늘었다. 지난달 국내 증시는 정부의 증시 부양책과 더불어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외국

인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됐다. 그 결과 코스피 지수는 4년 2개월만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소재 상장법인 38사의 시총은 32조 9027억원으로 전월 대비 5515억원(1.6%) 감소했다. 지역 상장법인 시총이 하락한 것은 신규 상장한 ‘대한조선’의 주가 조정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한조선 시총은 코스피에 상장한 당일 85% 상승하며 시총 3조 5598억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주가 조정 과정에서 시총이 1926억 3156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561.81 (-22.74)
↓ 코스닥	847.96 (-12.53)
↓ 금리(국고채 3년)	2.533 (-0.021)
↑ 환율(US D)	1433.70 (+7.90)
〈오후 5시 07분 기준〉	

광주상의 회원 기업 대상
산재·노동사건 대응 교육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오는 21일 회원 기업 대상 ‘산업재해 및 노동사건 대응 실무 심화교육’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은 김용인 한동노무법인 노무사를 초빙해 산업재해와 후속 조치, 중대재해 발생 수사, 노란봉투법 내용을 과장별로 세분화해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광주상의는 이번 강좌가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 향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희 광주상의 회원사업본부장은 “산업재해와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기업 실무자들이 다양한 노동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의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회원사업본부(062-350-5883)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 깜짝실적

매출도 분기 첫 80조원 넘어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분기 부진을 완전히 털어냈다. 매출도 분기 최초로 80조원을 넘어선 86조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사업이 최대 6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자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14일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4조 6800억원) 대비 158.55% 증가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10조 4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아울러 2022년 2분기(14조 1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출은 86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72% 늘고, 전 분기 대비 15.3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은 지

난해 3분기 79조 1000억원이었다. 이번 영업이익은 증권가 전망치를 17.4% 크게 웃돌았다. 이날 부분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6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2분기 4000억원 대비 실적이 크게 반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DS 부문은 지난 2분기 미중 무역규제 영향 하에 대규모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으나, 3분기 들어 D램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출하량 증가, 비메모리 사업의 적자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반등세가 가팔라졌다. 또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2조원이 넘었던 비메모리 분야 적자도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과 함께 이번 분기 1조원가량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부문에서는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가 폴더블 신제품 판매 증가에 힘입어 3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